

남부 지역 가뭄에 범정부 총력 대응

-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 대응체계 강화, ‘남부 지역 가뭄 대응단’ 신설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가용한 양수기, 급수차 등 긴급 동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남·광주, 경남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밀양의 저수율이 25.2%로 평년(74.3%) 대비 33.9%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를 강화하고, 산하에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이하 대응단)’을 신설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를 운영하며 위기 징후를 지속해서 살피고 분야별 대책을 점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뭄 장기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TF 단장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여 범정부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대응단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한다.

* (중앙부처) 행안부·농식품부·기후환경부·기상청·소방청·산림청, (지방정부) 전남·광주, 경남

대응단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 각 기관이 비축·관리 중인 급수차, 양수기, 펌프 등 가용 장비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CJ대한통운·한진·BGF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력해 남부 지역 현장으로 신속히 수송·배치할 계획이다.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실시간으로 비축, 관리하고, 재난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아울러, 전국 지방정부에도 보유 중인 가뭄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남부 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가뭄 피해 지역 등 추가로 자원이 필요한 기관은 KRMS의 응원 기능을 활용해 적기에 확보·대응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응단은 지방정부의 자체 대응력 강화도 독려한다. 가뭄 지역 주민의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여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이 장기화할수록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신설된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뭄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부생 (044-205-6369)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선무 (044-205-5270)
		담당자	서기관	김형현 (044-205-5274)



국민행동요령

가뭄



행정안전부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을 틀어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니다.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니다.



배수관, 양수기, 송수호스 등은 수시로 점검합니다.



물 손실방지를 위해 논두렁 등을 정비합니다.



농작물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뽕짚·비닐 등을 덮습니다.



밭작물의 파종이 자연된 지역은 대체 작물을 재배합니다.